

TUNISIA

튀니지

# 튀니지의 국기



- 1831년에 채택 (공식 버전은 1959년)
- 붉은 색: 붉은 색은 순교자들의 피를 의미함.
- 흰색: 평화를 의미함.
- 초승달 + 별 : 초승달은 태음력을, 별은 이슬람의 다섯 개의 기둥을 상징함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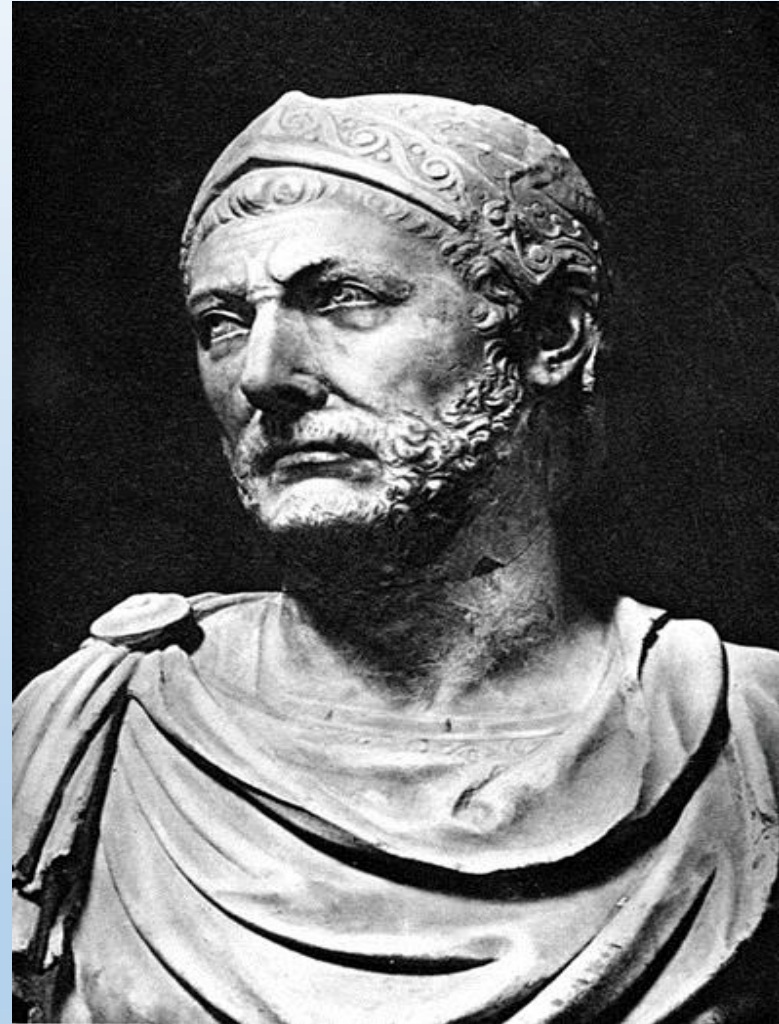
## 몇 가지 정보:

- 튀니지의 옛 이름은 이프리카(Ifrikia)로, 방문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우정의 분위기라는 뜻의 아랍어 동사에서 오늘날의 이름을 따 왔다.
- 인구 (2017년 추산치) 11,446,000
- 면적 163,610 km<sup>2</sup>
- 언어: 아랍어 - 프랑스어도 널리 쓰임
- 날씨: 지중해성 기후 (건조한 여름/비가 오는 겨울)
- 경치: 매우 다양함 (북쪽에는 녹지/남쪽에는 사막/동쪽에는 온화한 날씨/서쪽에는 춥고 뜨거운 날씨)
- 해안선을 따라 인구가 밀집해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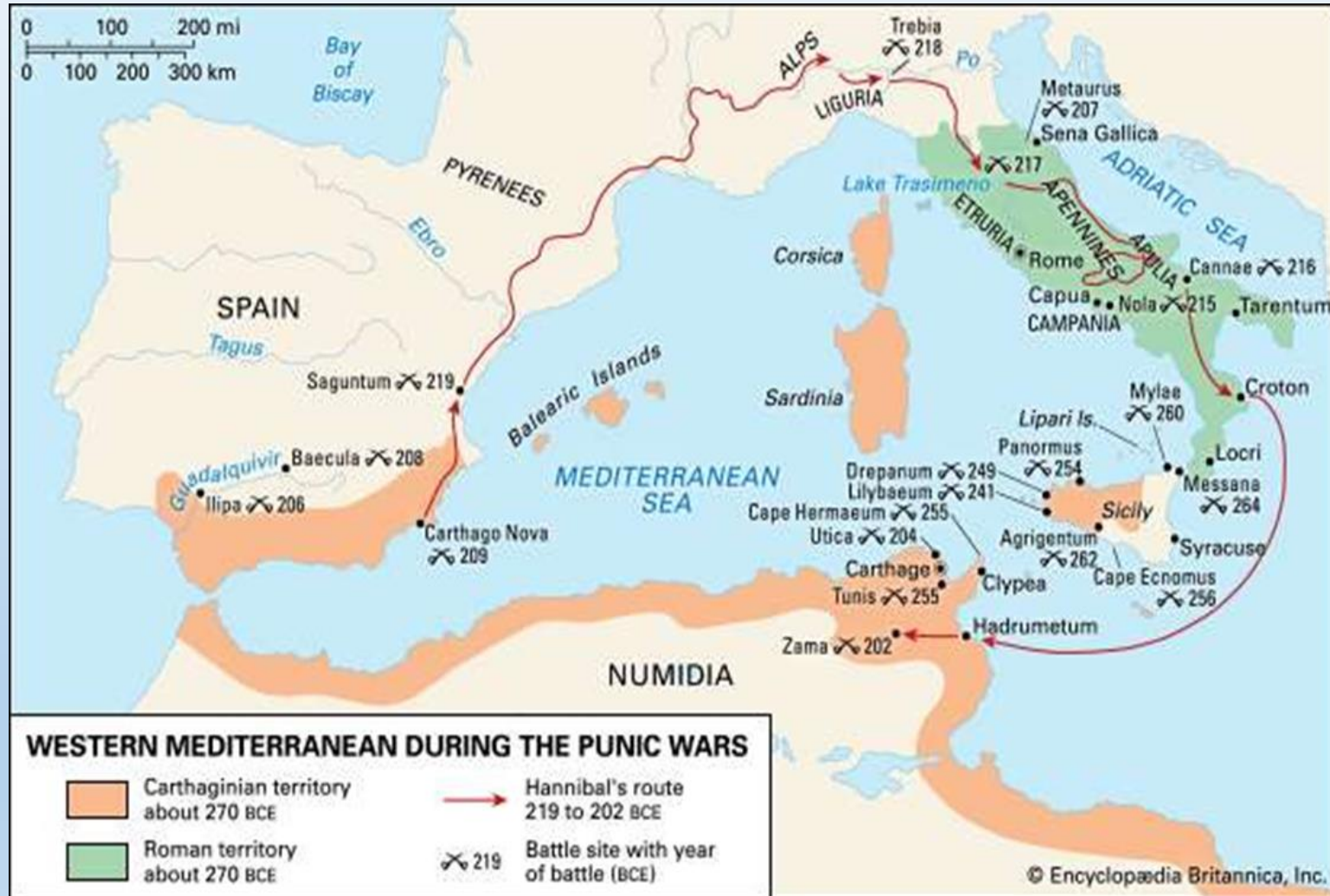


# 한니발

- 기원전 247년부터 183년까지
-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 사령관으로 꼽히는 그를 다른 사람들은 '전략의 아버지'라고 불렀다. 그는 15년 이상 이탈리아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.
- 한니발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? (7번 지도)



# 카르타고 제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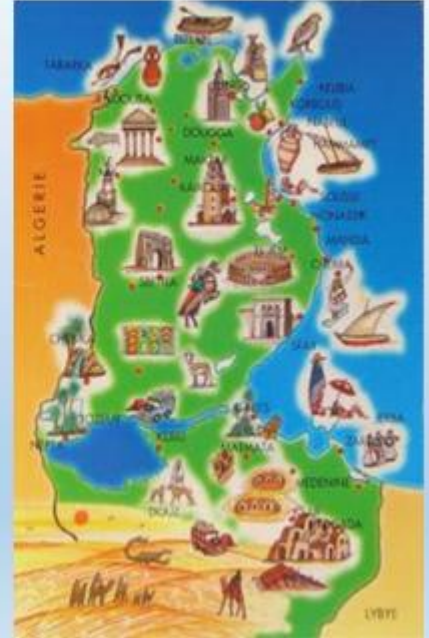






# 튀니지: 다양한 문화의 나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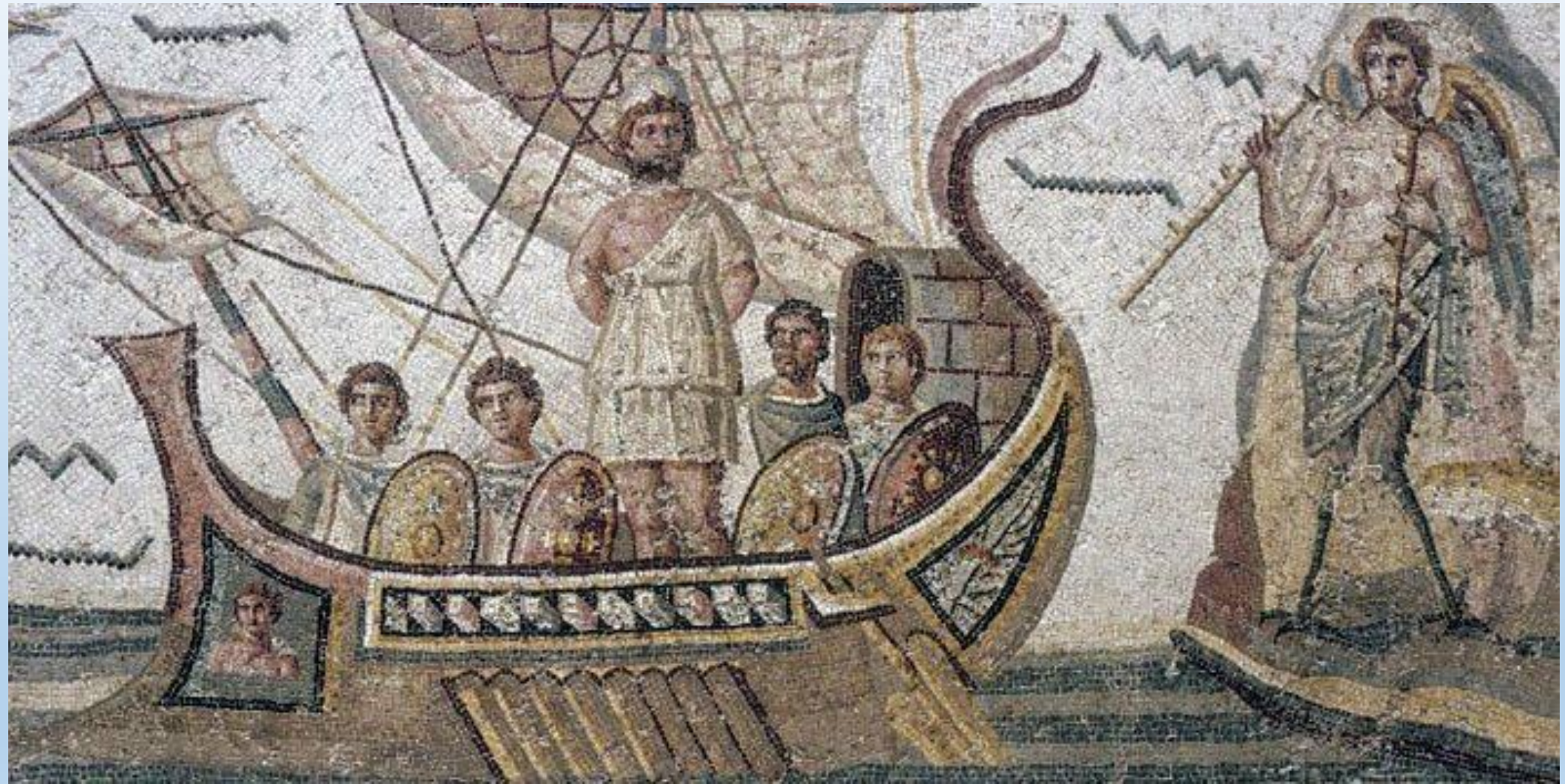
- 이 지도를 보면 다양한 문명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:
- 튀니지가 특히 예술 분야에서 크게 번영했던 로마 시대 : 튀니지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모자이크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(10 + 11 번 사진).
- 이슬람 문명 (Zitouna와 Aghaliba 모스크는 모두 세계 문화 유산이다) (13, 14 번 사진)



# 베르길리우스는 누구인가?

- 그는 로마 최고의 시인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.
- 이 모자이크는 라틴어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가장 오래된 초상화이다.









# 튀니지의 현대

- 튀니지는 75년의 프랑스 식민지 이후 1956년 독립했다.
- 현대의 튀니지:
  - 소년 소녀 의무 교육 (아랍-무슬림 세계 최초 소녀 교육 시행)
  - 기본 취학률 99%
  - 가족과 사회-경제적 관계를 구성하는 민법.
  - 생각과 신념의 자유 (이미지)



# 튀니지의 경제

튀니지의 경제는

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(올리브 오일, 대추야자, 오렌지, 석류...)

-튀니지는 올리브 오일에 있어 세계 4대 생산국이다. 튀니지에는 8,200만그루의 올리브 나무가 있다.

튀니지는 오렌지 생산에 있어서 지중해의 선두주자이다. (북동쪽에는 30종 이상의 오렌지 나무가 있다.)

- 대추야자: 다양한 종류가 있다. 가장 좋은 품종은 누르 "Nour"라는 품종이다. 이 품종을 EU 국가에 주로 공급하는 것이 튀니지이다. 한국에도 수출되고 있다..
- 아래의 사진은 한국의 드론이 튀니지의 농업 현장에서 더 나은 수확을 위해 쓰이는 모습이다.



# 산업과 서비스

- 산업 (분야: 직물, 자동차, 제약, 식품 등)
- 튀니지의 젊은이들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:  
왈리스카Wallyscar : 유럽 표준을 갖춘 최초의 튀니지 자동차 제조업체이며 유럽 및 전 세계에서 판매됨
- 고차원 기술의 스타트업





# 관광

- 튀니지는 관광 국가로 매년 7 백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다. 관광객들은 날씨, 해변, 아름다운 풍경, 박물관, 음식을 즐기러 온다.
- 아래의 사진은 밀, 보리, 고기, 생선, 야채를 기본으로 한 유명한 튀니지 요리인 쿠스쿠스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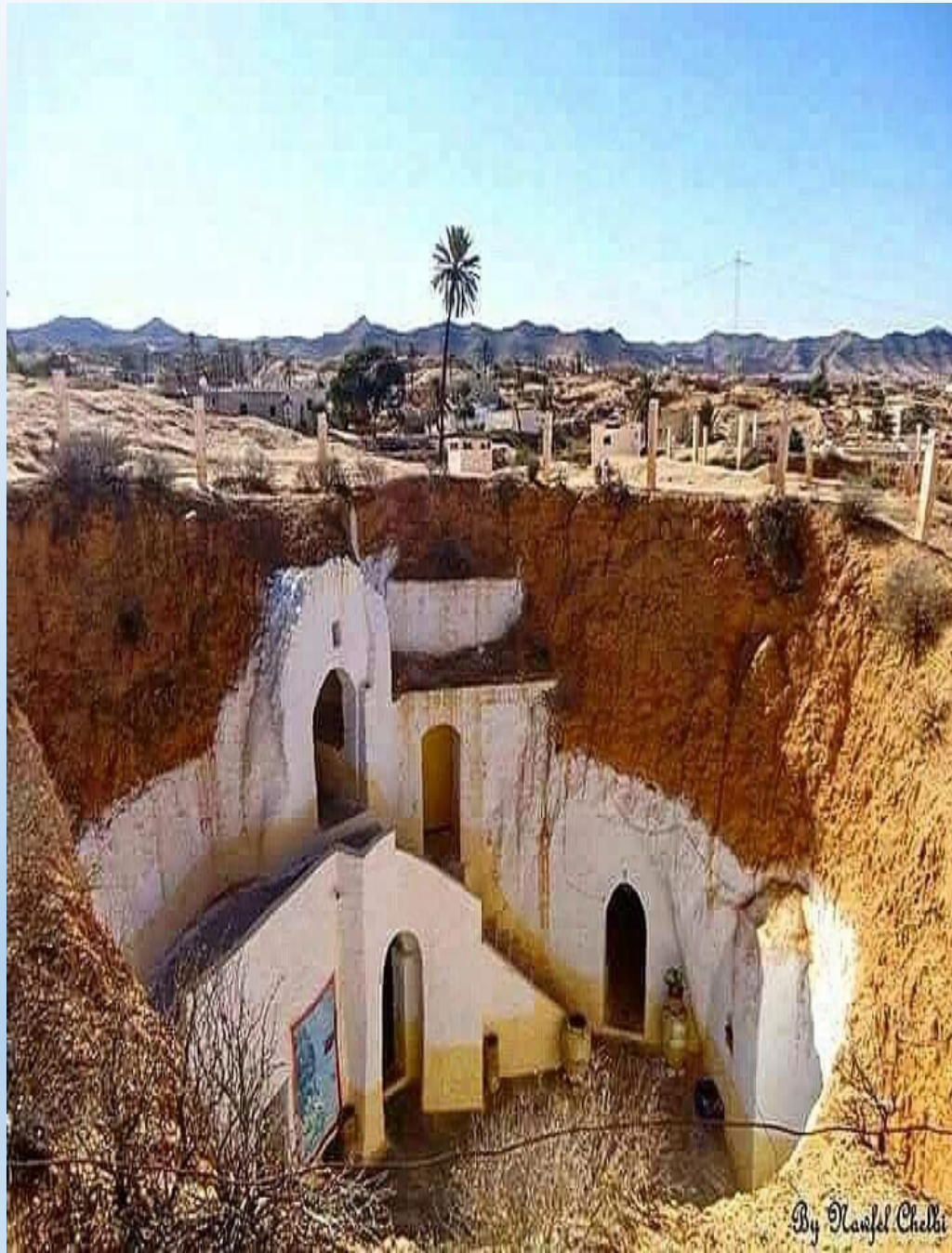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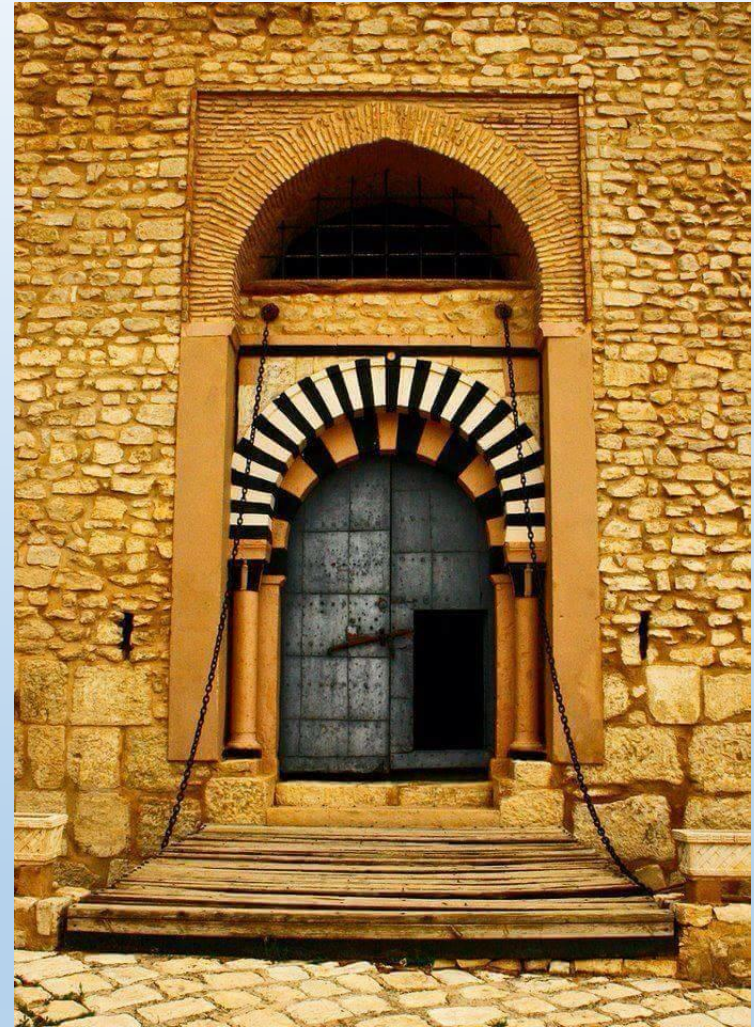






By Nanfel Chelb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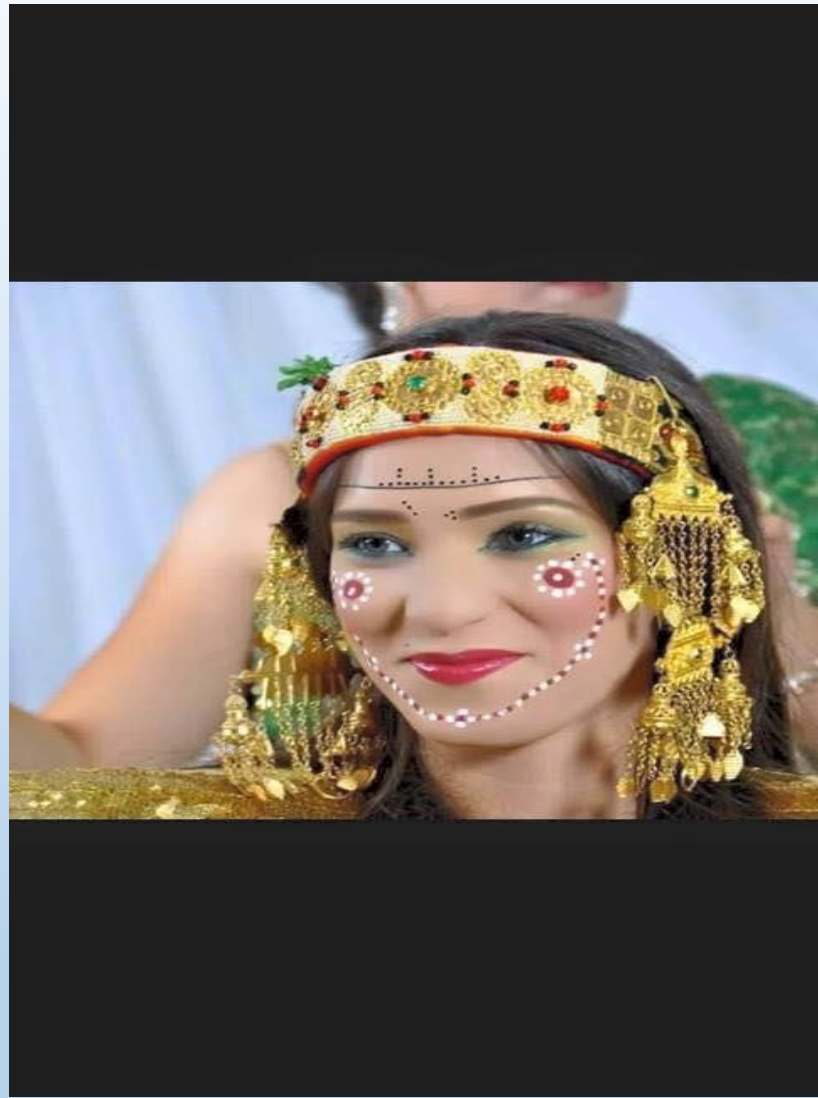




# 몇 가지 튀니지 전통 의상











# 튀니지의 동물과 식물군

튀니지에는 27 개의 자연 보호 구역이 있다.  
(야생 동물, 동물군, 식물군)

동물군 : 84 종, 새 375 종.

가장 유명한 것 : 나사뿔영양, 흰 영양 (멸종 위기 종 (튀니지에 들어옴) 및 다마 가젤

새 : 타조 (이미지)

펠리컨

매...

튀니지에는 41 개의 람 사르 (습지 보호 협약) 부지가 있다.





# 엘 시드 EL SEED- 튀니지의 예술가

2017년 11월, 엘 시드라는 튀니지-프랑스 캘리그래피 예술가가 레이저로 절단한 43개의 알루미늄 패널을 북한과 남한 사이에 있는 비무장 지대(DMZ)에 설치했다. 안산에 있는 경기 미술관의 의뢰로, 분단 이전에 사망한 북한 출신의 시인인 김소월의 글을 작품에 담았다. 그 시는 역사, 기억, 그리고 상실에 대한 통렬한 찬사임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기억할 것을 강력히 전한다.

- 이 프로젝트는 통일 계획을 상징한다.
- 엘 시드는 그의 작품으로 2017년 4월 유네스코의 상을 받았다.

